“강진만 생태공원을 월드클래스 국가정원으로”

기본구상 수립 토론회… 관련분야 전문가들 참석 논의

서식환경 개선·복원사업 등 총 731억원 투입 명소화 박차

‘강진만 생태공원을 월드클래스 국가정원으로 조성합시다.’

강진군이 지난 21일 강진만 생태홍보관 2층에서 ‘강진만 생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진흥실 남수환 부장, 동국대 조경학과 홍광표 명예교수, 나사렛대 스마트그린도시산업융합전공 박미옥 교수 등 조경, 생태, 정원 분야의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추진해 온 강진만 생태 국가정원 기본구상 수립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강진군은 국가정원 조성과 관련해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국·도비 포함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4년 6월에 준공하고 지방정원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강진만 생태 국가정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정원 운영실적 3년, 조성면적 30ha, 5가지 테마 구성까지 총 3가지의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강진만 생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단계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국가정원 등록을 위한 행정적, 강진만의 고유한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적, 그리고 정원산업을 통해 지역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경제적 요소 등 복합적인 사항들을 담아내야 하기에 강진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진만의 잠재적 자원을 최대한 부각시켜 강진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기 위해 강진군은 지난 2015년부터 강진만 생태공원에 2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큰고니와 짱뚱어 등 자연생태계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생태탐방로 설치를 시작으로 어린이와 가족들이 체험하고 쉴 수 있는 생태놀이터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했다.

자전거도로와 강진만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을 홍보하기 위한 생태탐방 학습홍보관 등도 지난 2022년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5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진만에 서식하는 생태계들을 전시하고, 4D가상체험시설과 실내탐조대 등이 들어서는 강진만 생태체험관이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탄력 및 탄소중립형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제방 숲과 환경교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스마트 그린도시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강진만 생태계의 서식환경 개선 및 복원을 위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어린이 놀이공원 및 강진만 노을경관 조성사업인 도보다리 설치 등 강진만 생태공원에 총 7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정원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차별화된 강진만 생태 국가정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현재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공사 등은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초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전남도 창작광고물 공모전

순천 행운광고 유준행 대표 ‘굴비구이’ 대상

전남도가 이틀간 나주정미소에서 전남의 우수한 광고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제21회 전라남도 옥외광고대전’을 개최했다.

첫 날인 지난 24일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 이재태·김호진 전남도의원, 최용채 나주시안전도시건설국장, 나주시의원, 이정현 전남도 옥외광고협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과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 옥외광고대상 공모전은 창작광고물(모형·디자인), 기존광고물, 동심에서 바라본 예쁜 간판 그림, 옥외광고 아이디어로 나눠 공모했으며 총 275점이 접수됐다.

디자인 관련 분야 교수 및 옥외광고 분야 전문가 등 6명의 심사위원이 조형성과 소재 활용성 등 종합 평가를 거쳐 65점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창작광고물 모형 제작 분야에서는 순천 행운광고 대표인 유준행 씨의 ‘굴비구이’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백의 미를 강조하면서 간접조명을 적용, 감성을 자극하며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작광고물 디자인 분야에는 고정우 씨의 ‘전통시장 광양문학 테마길 조형물 디자인’, 기존광고물 분야에선 장채윤 학생의 ‘태백산맥 꼬막거리’가 금상을 수상했다.

예쁜간판그림 저학년 분야에는 김유나 학생의 ‘건강짱!한의원’이 금상을, 고학년 분야에 허윤송 학생의 ‘예쁜글씨 피오피 주문제작’이 대상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올해는 옥외광고 아이디어 분야를 신설했으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아이디어’를 주제로 이뤄졌다. 공모 결과 안은영 씨의 ‘배너주머니의 탄생’이 활용도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금상을 수상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목포 ‘내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

영양 위험 요인 가진 임산부·영유아 대상 신청

목포시보건소가 오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2024년 영양플러스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임산부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이다.

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유, 쌀, 감자, 우유, 달걀 등으로 구성된 보충식품 패키지를 매월 2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최대 1년 동안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이 이루어지고 정기적인 영양평가 등 다양한 영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영유아 부모와 임산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임산부의 건강과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맞춤형 영양지원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재욱 기자

화순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360명에 2억1000만원 지급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이사장 구복규)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화순군의 다자녀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순장학회의 다자녀 장학금은 이번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분야로,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화순군의 인구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신설됐다.

본인을 포함하여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총 377명의 학생이 신청하였으며, 주소 요건 및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를 검토하여 미충족 자를 제외한 360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고등학생 300명에게 각 50만 원, 대학생 60명에게는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2억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장학 대상을 확대하고자 기존 상반기 1회만 신청·접수하던 장학생 선발 방법을 상·하반기 2회 접수로 변경하는 2024년도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진도, 친환경 국제인증 수산물 판매 확대 업무협약

다자협력형 해양양식업 친환경전환 관련

진도군이 최근 친환경 국제인증(ASC) 국제인증을 받은 친환경 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진도군-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올가홀푸드-친환경 국제인증(ASC)양식어가가 전복 중심의 진도 수산물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또한 군은 양식장 해양오염 감소와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3월 진도전복섬영어조합법인과, 2023년 9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협력해 조도지속가능전복협회를 대상으로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ASC)을 취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국제인증(ASC) 전복과 친환경 농수산물을 오는 12월부터 ㈜올가홀푸드를 통한 공동 판매를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판매 지원 활동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도군의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 판매촉진으로 진도산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영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공모 선정

초기투자비 1억4500만원 확보… 영암시니어클럽과 ‘기찬밥상’ 운영

영암군(우승희 군수)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도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인프라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초기투자비 1억45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영암시니어클럽이 신청한 사업의 도시락 서비스 분야 ‘기찬밥상’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

보건복지부에서 2개의 지자체만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적극 대응투자를 고려해 최종 5개소로 늘렸다는 후문이다.

영암시니어클럽의 기찬밥상은 △결식 우려 어르신 도시락 배달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민 무료 급식 지원 △식자재와 로컬푸드 한식뷔페 운영을 내용으로 한다.

사업장은 영암군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소통관 내 설치되고, 세부추진사항은 영암시니어클럽과 영암군의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간도 추가로 확보해 사업장을 확장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영암군은 기찬밥상이 어르신 일자리 제공 및 수익 창출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범 영암시니어클럽 관장은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생활을 위해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시니어클럽은 지난 8월부터 ‘사단법인 해피맘’이 위탁받아 영암읍 복지소통관 1층에서 운영하고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

광양,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큰 호응’

지역 내 4개 초등학교 312명 대상, 지방세 눈높이 교육

광양시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역 내 4개 초등학교, 4~5학년생 3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은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성실 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심어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의 추천으로 4개 초등학교(14개 학급)를 선정해 ▲10월 5일 성황초등학교(4학년, 4학급 90명)를 시작으로 ▲10월 6일 광양제철남초등학교(5학년, 3학급 79명) ▲11월 15일 광양와우초등학교(4~5학년, 4학급 68명) ▲11월 23일 광양가야초등학교(5학년, 3학급 75명)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세금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강사는 일선에서 세무 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광양시 세무직 공무원(이나현 주무관, 남민영 주무관)으로 애니메이션과 퀴즈 등을 활용해 「‘광양시는 왜 세금을 받나요?’, ‘지방세란 무엇인가요?’」란 주제로 세금의 종류, 납부 방법 및 광양시에서 세금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자체 제작한 세금 보드게임인 「세금블록」과 지방세 학습만화인 「세돌이 세순이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을 제공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고흥,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고흥군은 지난 23일 고흥터미널 주변에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고흥군, 고흥소방서, 고흥경찰서, 고흥군 새마을회 등 관내 기관과 단체에서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내용은 일상생활 속 교통안전 수칙과 겨울철 화재 예방법을 홍보했으며, 캠페인을 통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예방법을 주지시켜 지역 내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겠다는 취지이다.

캠페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출근 시간에 맞춰 현수막, 피켓, 어깨띠 등을 활용해 가두행진을 하며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군민들에게 안전 수칙을 담은 전단지와 홍보 물품(휴대용 소화기)을 배부하며 겨울철 화재예방 방법과 실천을 강조했다.

/고흥=신용원 기자

해남군-풀무원, 지역농특산물 상품개발 업무협약 체결

해남산 남도마늘 100% 신제품 출시… 지역상생 협력키로

해남군과 풀무원은 해남농수특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해남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풀무원 천영훈 영업FU대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해남군과 풀무원은 해남 농수특산루을 이용한 상품개발과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상생을 위해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풀무원에서는 해남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상품화 및 협력모델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으며, 해남군은 공동홍보 및 협력모델 발굴, 원료 농산물의 품질 유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풀무원에서는 해남산 남도마늘을 제품화한 ‘풀무원 국산 다진마늘 땅끝 해남산 100 %’상품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포장재에 해남군 상징물과 ‘해남산’을 알리는 문구가 표기된다.

해남 일원에서 재배되는 마늘은 대부분 남도종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쪽이 크고, 매운맛이 덜해 생식용이나 양념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해남은 영양이 풍부한 황토땅 등 최적의 재배환경을 갖춰 전국적인 마늘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해남산 농수특산물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지역상생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순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단체부문상,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 수상

순천시는 지난 24일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안전 증진 역량을 국제적으로 재인증 받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선포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을 비롯해 안전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안전도시란 ‘주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고와 손상, 폭력, 자살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이다.

시는 2018년 전남 최초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은이후 지난 8월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재공인을 획득했다. 이후 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손상사망률을 감소시켰다. 특히, 교통·낙상·폭력범죄·자살예방·재해재난 5개 분야에서 102개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분야별 안전사고 감소 및 시민 안전 문화정착에 노력했다.

선포식에서는 제4회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단체부문상은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 개인부문상은 박상욱. 정은영씨가 수상했으며, 공인 협정서 서명, 공인패 전수, 건설현장 안전문화 실천을 위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순천=조순익 기자